



# 전남 매일



제7843호 1989년 6월 29일 창간. 대표전화 062-720-1000

jndn.com

단기 4351년(음력 2월 7일)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 민주 전남지사 경선구도 26일 ‘분수령’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의 입당과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출마자격 논란이 오는 26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키를 끊 민주당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남지사 경선구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도교육감 사퇴와 함께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 전 교육감은 출마선언 다음 날 민주당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냈지만, 현재까지 입당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변수’ 장만채 입당·김영록 당규위반 판가름  
최고위·당무위 결정 따라 선거 구도 ‘요동’

장 전 교육감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초청강연 문제로 민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장 전 교육감 측은 이를 의식한 듯 통상 시·도당에 입당을 신청하는 관례를 벗어나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21일 늦어도 23일에는 입당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을 위한 1차 관문인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부총장의 외국 체류 등으로 자격심사위조자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으로 회의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 장 전 도교육감의 입당심사를 위한 당원자

격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장 전 교육감의 입당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26일 최고위에서 입당여부가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월·수·금 열린다.

장 전 교육감 측은 당원자격심사위가 열리면 입당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광역단체장 후보자 서류접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서 지각 사퇴

해 경선 출마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거취도 중앙당 당무위원회가 열리는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지난 19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 위원회에 신청서를 냈지만, 일부 예비후보의 이의제기로 당무위원회 결정 이후에 적격·부적격 판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당규 위반에 대해 당무위원회에서 소명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지역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장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 전 장관은 사퇴시한(2월13일)을 훨씬 넘겨 경선 출마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측은 역시 오는 24일 1차 마감예정인 광역단체장 후보자 서류접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장 전 교육감이 출마자격 논란과 입당문제로 선거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경선구도가 크게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반갑다 프로야구” 2018시즌 내일 개막

KIA 24일 오후 2시 광주 kt와 격돌



2018프로야구가 24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KIA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지난해 10월 30일 한국시리즈 5차전 이후 145일만이다. <관련기사 16면>

오는 24일 오후 2시 전국 5개 구장에서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가 시작되는 가운데 KIA 타이거즈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첫 경기를 갖는다.

지난해 8년만에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 통합우승을 차지한 KIA는 올해 역시 유력한 챔피언 후보다. ‘외국인 삼총사’ 헉터, 팻던, 베나디나는 물론 양현종과 김주찬 등 우승전력을 유지하고 새 시즌을 맞았다.

KIA는 24일 지난 시즌 공동다승왕(20승) 헉터를 선발로 내세워 ‘V12’를 향한 시동을 건다. 25일은 토종 에이스 양현종이 나선다.

KIA는 시즌 오프닝을 맞아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

개막전 시구는 광주 출신 가수 유노

윤호가 맡는다.

이날 입장 관중에게는 응원 클래퍼 2만개와 엠블럼 깃발을 나눠 주며, 식전행사로 2017시즌 통합우승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외야 그라운드에 11개의 한국시리즈 우승 엠블럼 통천이 펼쳐지고, 2017한국시리즈 우승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돼 그 날의 환희를 되새긴다.

이어 1루측 빠 전광판 상단에 설치한 11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엠블럼 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KIA는 개막에 앞서 23일 오후 11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18시즌 안전 및 우승 기원제를 실시한다. /최진화 기자



“강은 흘러야 한다”

2018년 세계 물의 날인 22일 오후 광주·전남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승촌보 앞에서 4대강사업 결과 물길이 막힌 영상강 승촌보·죽산보를 해제 및 하굿둑 해수 유통을 촉구하며 물고기들이 강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당신의 숨은 스코어를 찾아주는 특허 골프공 엑스페론



골프공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회전라인 무게중심, 회전라인을 찾아 특허받은 골프공

엑스페론골프공은 공의 뒤틀려진 무게중심과 회전라인을 얼라인먼트한 특별한 골프공입니다.

#### Xperon 골프공의 특징

강한내구성, 저경도 고반발의 경화형 우레탄커버 적용

더욱 길어진 비거리

모든 샷에 최적화된 탄도와 Roll Distance

손쉬운 솟 게임을 위한 최상의 스피드 컨트롤

모든 헤드스피드에서도 최상의 비거리를 발휘하는 더욱 부드러운 타구감



◎ 골프공 회전 안내라인 자동화 형성 시스템  
◎ 골프공 무게중심 자동화 마킹 시스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48-18 다남빌딩 3층  
www.xperon.co.kr 02-2070-5009 xperongolf@daum.net

## 대통령 개헌안 ‘전문+11장 137조+부칙’

대통령 4년 연임제·지방분권 지향…5·18 등 전문수록

대통령 사면권·대법원장 인사권 축소·선거 연령 18세

정화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4면>

정화대는 22일 대국민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한 뒤 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26일까지 개헌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공식 발의한다.

이 개헌안은 전문과 11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헌법은 전문과 10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어 조문이 다소 늘었다.

개헌안은 특히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 제2장 ‘행정부’에 들어있던 감사원을 별도의 제7장으로 떼어 냈다. 기존 제7장 ‘선거관리’는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기본적 권리

와 의무’로 이름이 변경됐다.

자치와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사회적 가치도 명시했다. <관련기사 4면>

정화대는 22일 대국민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한 뒤 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26일까지 개헌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공식 발의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하고 종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제70조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로 한다는 규정을 국내외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71~72조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규정하고, 대통령 피선거연령을 삭제해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제74조와 부칙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게 했다.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게 하려고 현 대통령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게 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려

면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모든 사면권한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제83조에 뒀다.

제58조에 예산법률주의를 규정해 재정을 통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을 강화했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도 강화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언제를 도입하도록 해 국회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경제장치를 마련했다.

제23조에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규정을 뒤 선거권을 강화했고, 제44조에는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해 선거 비례성 원칙을 조문화했다.

제55조와 97조에 지방행정부의 장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신설안을 두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보장했다.

한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연령·인종·지역’을 추가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2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에 제의

“정상회담 일정·의제 논의…조명균 등 3명 파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2일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고,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계기로 4월 말 판문점 평화

의집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상태다.

정부는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학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을 상정해놓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토·일요일 신문입니다